

사회표상 계층에 대한 대학생들의 부패인식

A Study of Corruption Perception of Symbol

배 정 환(Bae, Jeong Hwan)*

ABSTRAC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ollege students' awareness of corruption among social classes. As well as recognition of oneself, recognition of the group and society he belongs to affects his behaviors. Thus, this study attempts an exploratory study for the sound development of our society in the future by analyzing how college students, who are the leaders of the future generation, recognize of corruption among the social classes in society.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turned out that reliability on the social classes in society was very low, and the current anti-systems or programs in our society were insufficient compared to those of advanced countries. Besides, it turned out that distrust in the older generation and social leadership affected college students' recognition of corruption, which indicates that careful approach to strategies for anti-corruption in the future is essential.

Key Word : symbol, corruption, social differentiation, confidence, trust

1. 서론

2012년 12월 국제투명성기구(IT)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176개국 중 45위를 기록했다. 2011년 43위 였으며 2010년에는 39위로 순위가 3년 연속하여 떨어졌다(한국투명성기구, 2012). 최근에는 서울 국세청 팀 전원이 뇌물을 받았다는 보도와 고위층 성접대 파문,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가 2013년 1월에 발표한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우리사회가 부패하다는 응답으로 일반국민 44.3%, 국내기업인 40.1%가 부패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국민권익위원회, 2013). 이러한 현상은 현재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경제적 민주화와 더불어 변화와 개혁, 그리고 위기라는 시대적 상황을 극복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해방 후 새로운 형태의 국가체제가 들어서고 지금까지 엄청난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였지만 다가올 미래에 대한 예사롭지 않은 변화가 사회전체에 감지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권력의 이동정도가 변화의 주체였다면 현재 나타나고 있는 변화는 세대

* 한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행정학박사

간의 갈등, 신분과 지위의 충돌 등과 같은 갈등이 사회적 변화에 있어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의 문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변화에 대한 생각과 개념에 따라 변화의 경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이 갖는 개념은 각 개인의 사고 뿐만 아니라 행동을 결정하는 과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갖는다. 이러한 자기와 관련된 인식은 행동의 선택이나 강도 그리고 지속도 등을 결정하는데 밀접히 관련이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Jourden(1991)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설정하는 목표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과제에서도 자기 만족도가 높으며, 조직에서의 성취수준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배정환, 2009).

또한 개인으로서 자기에 대한 인식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속한 집단이나 조직에 대한 표상, 그리고 사회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행동에 영향(K. Kashima, T. Ishimaru, H. Okamura, H. Suginami, K. Ikuma, T. Murakami, M. Iwashita, K. Tanaka, 2004)을 미주고 있다는 것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미래세대인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가운데 우리 사회표상 계층에 대한 부패 인식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 우리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투명한 사회의 건설을 위한 미래세대의 인식 변화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현재까지의 부패에 대한 논의는 특정한 사례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요한 흐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렴성에 기인한 부패지수를 바탕으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에서 대학생들의 사회에 대한 영향과의 관계, 부패에 대한 인식, 그리고 사회적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의 반부패 교육에 대한 내용들은 아직 연구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¹⁾.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대학생들의 반부패 또는 순전성(청렴; Integrity)의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사회와 집단, 그리고 사회적 표상계층에 대한 인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실증적 분석은 본 연구자가 2009년에 시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4년이 경과한 시점과의 비교를 통하여 인식의 변화와 차이점, 그리고 이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투명성이나 기업 거버넌스, 공직윤리의 개선, 반부패 시스템의 강화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전환을 제시하는데 있어 미흡하나마 정책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즉 미래 세대의 부패에 대한 정확한 인식 조사를 통하여 우리 사회가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 실제 학술지전문검색사이트인 KSI KISS에서 부패인식으로 검색하면 23건이 검색되며, RISS로 부패와 대학생으로 검색을 하면 19건의 학술지논문이 검색되었다(2013년 5월 6일 현재).

II. 사회적 표상과 부패인식

1. 사회적 표상

현재 우리나라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속도도 매우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개인과 집단, 그리고 사회는 지속적인 변화속에서 연결되어 있으며 나름의 사회적인 특징을 가지고 발전하고 있다. 개인으로서의 자기의 인식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속한 집단이나 조직에 대한 표상²⁾도 집단 구성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선행연구들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다(K. Kashima, T. Ishimaru, H. Okamura, H. Suginami, K. Ikuma, T. Murakami, M. Iwashita, K. Tanaka, 2004).

특히, 개인에 초점을 둔 사회특성과 그 구성원에 대한 표상은 집단주의 문화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집단주의 문화에서 개인은 독립적인 자율성을 지닌 개체로서보다 그 개인이 속한 집단이나 사회에서의 역할과 관계에 의해 정의되기 때문에 관계된 집단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요구되고 있다(유광민·김기완·김남조, 2007).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 표상과 신뢰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맥락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신뢰의 형성에서 ‘우리관계’가 중요함으로써 관계문화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정서적인 유대관계가 신뢰관계에서 의미있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신뢰의 과정에서 능력보다는 도덕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수양을 하는 인격자를 인정하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박영신·김의철, 2005).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사회적 표상은 집단적 관계 또는 사회적 관계속에서 지식을 획득하며 동시에 획득된 지식을 타인과 교환하는 양식 중 특정한 한 가지 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사회적 표상은 사회에서 지식을 획득하고 전달하는 수단이며, 그 수단은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 여러 가지 수단 중 한가지의 특정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식은 독자적 사유나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얻어지기 보다는 의사소통을 통해 공급받는다. 따라서 동일한 인지내용이 집단속에서 반복적으로 교환될 때 인지내용은 주관적인지에서 객관적 인지로 전환되며 구체적인 외적준거를 장착하게 된다. 이것이 곧 사회적 표상이며 이러한 사회적 표상은 새로운 지식을 얻는데 준거체제로 작용하여 무지의 자극이나 상식과 같은 기정사실적 지식체제로 전환시키게 되는 것이다(최상진, 1990).

2) 본 연구에서는 본을 받을 만한 대상이나 대표로 삼을 만한 상징으로 표상(表象)을 정의하고자 한다. 표상에 대한 논의는 철학과 심리학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제이며 의미론이나 실용론, 화용론 등에서 의미하는 표상의 구체적인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는 표상의 정의를 단순화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사회적 표상에 대한 주요한 논의는 뒤르켐(1982)의 정의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뒤르켐은 “개인들의 의식 외부에 존재하는 주목할 만한 속성을 갖는 행위, 사고, 감정의 방식”이 사회적 표상이라고 정의하였다(Pearce, P.L., Moscardo, G., G.F., 1996). 사회적 표상의 연구가 부패와 연관성을 갖는 이유는 대상에 대한 과거경험, 그 경험의 정신적 이미지 그리고 기타 기억요소가 사회에 대한 인식의 주요한 영향이 미치며 자기 행동의 패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즉,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사회적 표상이 미래의 행동의 전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표상은 지각과 주변 세상의 사건이나 사물을 이해하고 행동하기 위해 사용하는 메커니즘(Fredline & Faulkner, 2000)이며 사회 표상은 사회적 실체를 이해하고 구조화하는 수단으로 광범위한 사회적 신념을 내포하며 합의된 세계와 가깝다고 할 수 있다(최순영, 1987).

Moscovici는 사회적 표상을 지각자 자신의 문화적 의미와 경험을 독립적으로 지속하는 가치와 이미지 그리고 선입관의 시스템으로 정의하였으며 표상은 사회내부에서 집단에 의하여 공유되어지며, 상호 작용과 교류에 의하여 동시에 결정되어지므로 사회적 표상은 특정집단과 연계되어 질 수 있다(Fredline & Faulkner, 2000). 그리고 사회적 표상은 집단간 관계 속성에 따라 사회적 표상의 내용과 형식이 형성되고 변화되며, 사회적 표상의 제반속성에 따라 집단 간 관계의 성격이 규정되고 집단간 관계의 차후 속성을 결정한다(최순영, 1987).

이러한 차원에서 사회적 표상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세상사에 대한 관계양식과 대응방식을 제공하며, 둘째, 사회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에서 전형적 의미기호 및 설명체계와 세상사 및 역사적 사항에 대한 전형적 해석양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최상진, 1990).

따라서 사회적 표상은 집단에 대한 인식 및 특성에 대한 반응과 인지활동 및 인지활동에 개입하여 인지활동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현재 우리의 행동들은 사회의 표상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결과이며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행동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한 대상이 되는 대학생들의 사회 지도계층에 대한 인식이 미래의 개인행동의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해 주목할 것이며 주요대상이 되는 대학생들의 집단과의 관계속에서 우리 사회의 투명한 발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 표상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으로 정책집행에서의 갈등을 해소하는 기제로 사회적 표상과 신뢰가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Almond & Powell은 정책의 유형을 분류하면서 상징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정부정책, 즉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집행의 순응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의 표상 또는 상징에 대한 미흡한 연구로 인해 사회적 갈등 또는 개인의 가치에 대한 불필요한 갈등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

2. 부패에 대한 인식

부패에 대한 개념정의에 대한 논의는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부패를 측정하려는 시도는 국제투명성기구를 중심으로 시도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지난 1995년 이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산출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또한 뇌물을 주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뇌물공여지수(BPI: Bribe Payers Perceptions Index)와 일반 국민들의 체감인식을 조사한 세계부패바로미터(GCB: Global Corruption Barometer)를 발표하고 있다.

<표 2> 대학생들의 부패에 대한 인식 설문 문항

연도	CPI 지수	순위	조사대상국
1995	4.29	27위	41개국
1996	5.02	27위	54개국
1997	4.29	34위	52개국
1998	4.2	43위	85개국
1999	3.8	50위	99개국
2000	4.0	48위	101개국
2001	4.2	42위	91개국
2002	4.5	40위	102개국
2003	4.3	50위	133개국
2004	4.5	47위	146개국
2005	5.0	40위	159개국
2006	5.1	42위	163개국
2007	5.1	43위	180개국
2008	5.6	40위	180개국
2009	5.5	39위	180개국
2010	5.4	39위	178개국
2011	5.4	43위	183개국
2012	56(100점 만점)	45위	176개국

자료 : 한국투명성기구, 2012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2013)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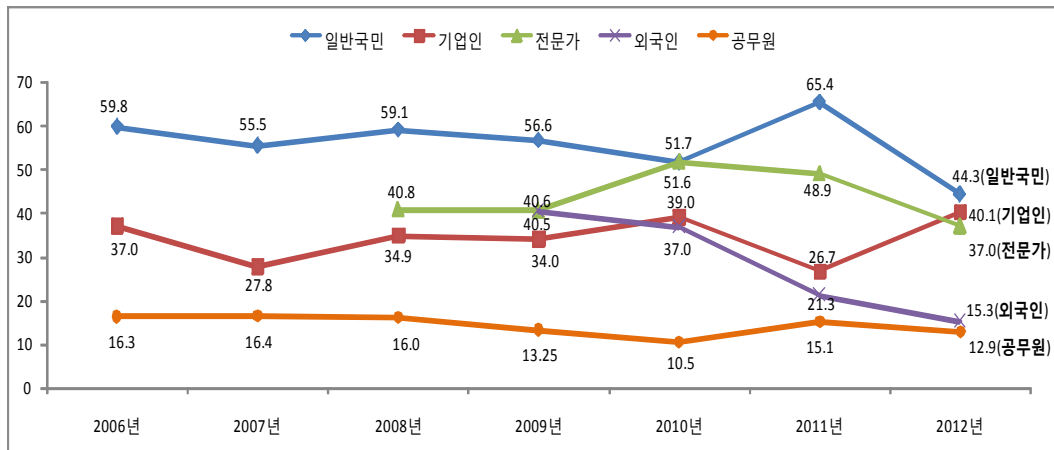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의 부패 인식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과거 부패방지에 대한 논의는 제도와 법률, 그리고 공무원들의 태도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뤄 왔으며 1970년 이후 공직윤리라는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⁴⁾.

3) 본 연구에서 이론적 논의는 본 연구자가 2009년 발표 논문의 주요 내용을 따르고 있음.

4) 2013년 5월 현재 학술정보데이터 검색사이트인 KIS KISS를 통하여 부패, 공직윤리 등 주요 검색어로 부패에 대한 검색을 시도한 결과 부패 1079건, 공직윤리 90건, 부패인식 23건으로

하지만 이러한 부패 인식에 대한 연구도 공무원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는 우리나라에서 2001년 이후 부정기적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이를 세분화하여 사회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이나 20대 30대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림 1> 우리사회 전반 부패하다 응답률 추이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2012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2013.

부패에 대한 인식은 개인이 독립된 개체로서 뿐만 아니라 소속한 사회 내에서의 관계망에 의해서 정의되고, 관계구조가 개인의 사고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집단의 인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부패 인식에 대한 논의는 개별연구자의 부패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나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측정 항목에서의 부패인식지수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의 개별적인 부패인식의 측정은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한 효과도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우리사회의 특정계층이 한국사회와 사람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제시된 결과와 마찬가지로 한국사회는 투명성이 비교적 낮고 부정부패가 많다고 어떠한 계층에서 인식하고 있는가? 아니면 객관적으로 비교된 지표들과 달리, 우리사회의 계층집단은 우리사회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지각하지 않는가? 부정적인 표상 외에 긍정적인 표상은 없는가? 있다면 그 계층의 긍정적 표상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인식의 측정은 나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진중순·서성아, 2007). 하지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최근의 연구결과들에 부분적으로 시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정치지도자에 대한 인식연구결과(김묘성·김의철·박영신, 2002)와 민주주의

나타났으며 부패인식에 대한 학술논문은 1995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가 발표된 해를 기준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장애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인 한국의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윤영진·김의철·박영신, 2004), 동아시아와 북유럽인들의 공통인식에 대한 비교연구(김의철·박영신, 2005), 문화적 요소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한국인의 신뢰의식을 분석한 경험과학적 연구결과들을 정리한 박영신·김의철(2005)의 연구들이 우리사회의 신뢰와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연구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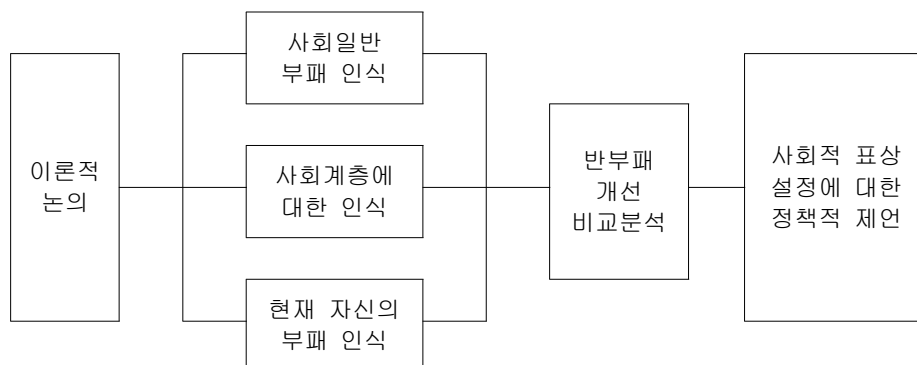
III. 부패인식에 대한 실태분석

1. 조사설계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부패에 대한 사회일반적인 시각과 사회적 표상으로서 역할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사회계층에 대한 인식, 그리고 향후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대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부패방지에 대한 생각을 조사하였으며 이러한 조사는 2009년에 시행된 연구자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였다.

설문문항은 2009년 시행된 설문과 동일하게 국제청소년반부패인식지수(Youth Integrity Index, YII)의 조사항목인 도덕/윤리, 정의, 법준수, 반부패 영역과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계층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계층에 대한 부패인식 항목을 추가하여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첫 번째 항목은 대학생들이 현재 우리사회의 부패정도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영역과 현재 우리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계층에 대한 부패인식을 조사하였으며 세 번째로 자기 자신들의 사회정의, 법준수 등에 행동양태를 측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부패에 대한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림 1> 본 연구의 분석 틀



우선 첫 번째 영역에서는 사회에 대한 표상과 신뢰에 대한 내용들이 파악될 수 있을 것이며 두 번째로, 이러한 사회적 표상들이 현재 올바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표상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방안들에 대한 논의를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설문조사는 각 문항별로 10점 척도를 적용하여 조사하였고 1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값을 10점은 매우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값을 의미하도록 설문을 구성하였다. 설문의 대상은 충청권 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주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의 선정은 연령과 성별 등을 고려하여 샘플링하였고 설문 조사기간은 2013년 4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되었다. 설문조사는 이전 설문조사의 결과와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이전 설문조사지역인 충남 천안과 서산, 충북의 청주지역, 그리고 대전지역 1-4학년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해 설문조사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설문조사 방식은 설문조사원을 통하여 대면 면접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은 총 350부의 설문을 지역별로 나누어 배포하여 최종응답자는 227명으로 회수율은 64.9% 였다.

<표 2> 대학생들의 부패에 대한 인식 설문 문항

영역	설문내용	Cronbach α
1. 일반적 사회의 부패인식	1) 현재 우리 사회의 부패 수준 ① 부패증감에 대한 인식 ② 부정부패 만연정도 ③ 선진사회와의 비교	0.639
	2) 지도층에 대한 인식 ① 지도층의 부패척결의지 ② 기성세대 청렴성에 대한 인식	0.632
	3) 우리사회 반부패 제도 및 수용정도 ① 법제도의 합리성 ② 교육의 적절성	0.743
2. 계층별 부패인식	① 정치계에 대한 인식	0.908
	② 경제계에 대한 인식	
	③ 교육계에 대한 인식	
	④ 법조계에 대한 인식	
	⑤ 의료계에 대한 인식	
	⑥ 공무원에 대한 인식	
	⑦ 시민단체에 대한 인식	
3. 자기 자신의 행동양식 (국제청소년 반부패인식지수 참조)	① 정의에 대한 인지	0.609
	② 도덕/윤리에 대한 인지	
	③ 법준수 인지	
	④ 반부패 행동	
4. 부패 개선 방안 인식	① 반부패 교육 강화	0.873
	② 처벌제도 강화	
	③ 지도층의 솔선수범	
	④ 반부패 제도 신설 및 강화	

본 연구의 전체 설문문항의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 알파값이 0.6 이상으로 나타나 설문문항 및 응답의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설문의 신뢰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설문조사결과 조사대상 대학생들의 일반적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 111명, 여성이 116명으로 나타났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응답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대별로 분류한 결과도 19-22세 사이의 대학생들이 가장 많은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3세 이상의 대학생들은 응답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현재 사회적인 분위기를 비롯하여 고학년은 주로 취업이나 기타 전공에 대한 부담으로 설문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기 곤란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충남 36.1%, 충북 31.7%, 대전 32.2%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 대학생들의 일반적 현황

분류		빈도	유효 퍼센트	분류		빈도	유효 퍼센트
성별	남 성	111	48.9	가구 소득	150만원 이하	20	8.8
	여 성	116	51.1		250만원 이하	59	26.0
	합 계	227	100.0		350만원 이하	70	30.8
					350만원 이상	78	34.4
					합 계	227	100.0
학년	1학년	82	36.1	연령 대	19세-20세	72	31.7
	2학년	49	21.6		21세-22세	72	31.7
	3학년	59	26.0		23세-24세	44	19.3
	4학년	37	16.3		25세 이상	39	17.1
	합 계	227	100.0		합 계	227	100.0

2. 분석결과

1) 사회일반에 대한 부패인식 결과

현재 우리 사회일반에 부정부패 감소를 위한 노력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부패 현실 인식, 그리고 우리 사회보다 발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선진국과 비교하였을 때 부패의 정도에 대한 일반적인 대학생들의 인식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와 같은 설문으로 2009년에 시행된 응답과의 비교 분석은 다음과 같다.

<표 3> 현재 우리사회의 부패 수준에 대한 일반 인식분석 결과

	2009			2013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부패가 감소하고 있다고 느끼는 인식	203	7.82	2.06	227	8.02	1.69
부정부패 만연에 대한 인식	203	7.73	2.22	227	7.97	1.80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사회 부패 수준 높다고 인식	203	7.33	2.14	227	7.53	1.87

우선 현재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의 응답에 대해서는 2009년 보다 좀더 높은 점수를 나타낸 8.02점으로 우리사회의 부패해소를 위한 노력에 대한 평가를 높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우리사회가 부정부패에 만연해 있다고 응답한 비율과 선진국과 비교하여 부패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2009년과 비교하여 더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 부패감소에 대한 가구 소득별 차이

		2009				2013			
		N	평균	F	P	N	평균	F	P
부패가 감소하고 있다고 느끼는 인식	150만원 이하	18	7.67	2.977	0.032	20	7.80	3.835	0.010
	250만원 이하	53	8.45			59	8.59		
	350만원 이하	65	7.84			70	8.04		
	350만원 이상	67	7.34			78	7.64		
합계		203	7.82			227	8.03		

일반적인 부패인식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응답자 특성과 대비하여 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패가 감소하고 있다고 느끼는 인식(10점이 가장 긍정적)과 가구소득수준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찾아 볼 수 있었다. 특히 소득이 아주 낮거나 아주 높은 수준의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의 부패가 덜 감소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을 나타냈으나 전체적인 응답의 평균이 높아 현재 대학생들이 부패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표 5> 현재 우리사회의 지도층 및 장년층에 대한 일반 인식분석 결과

	2009				2013			
	N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오 차	N	평균	표준편 차	평균표 준오차
사회지도층의 부패척결 도덕성에 대한 인식	203	2.37	1.82	0.13	227	2.08	1.27	0.08
우리사회 장년층의 청렴성에 대한 인식	203	3.73	1.79	0.13	227	3.20	1.30	0.09

또한 현재 우리 사회의 표상이 될 수 있는 지도층과 기성세대에 대한 대학생들의 평가에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게 표출되었으며, 특히 2013년에 측정한 평균값이 더 낮게 나와 지도층에 대한 평가 및 신뢰가 좀더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 지도층 및 장년층에 대한 인식과 응답자 특성간 차이

		2009				2013			
		N	평균	F	유의 확률	N	평균	F	유의확 률
사회지도층의 부패척결 도덕성에 대한 인식	1학년	73	2.04	2.684	0.048	82	1.84	4.091	0.007
	2학년	47	2.79			49	2.37		
	3학년	53	2.68			59	2.39		
	4학년	30	1.97			37	1.73		
	합계	203	2.37			227	2.08		
	150만원 이하	18	4.00	3.233	0.023	20	1.90	2.969	0.033
	250만원 이하	53	3.72			59	1.84		
	350만원 이하	65	4.17			70	2.44		
	350만원 이상	67	3.24			78	1.97		
	합계	203	3.73			227	2.08		

우리 사회의 지도층의 부패척결과 도덕성에 대한 인식과 우리사회 장년층의 청렴성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의 결과 사회지도층의 부패척결 인식 분석에서는 학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특히 고학년의 인식이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3년과 비교하면 현재 1학년 학생들의 인식이 비교적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 가구소득별로도 2009년도 보다 현재의 인식이 더 나빠졌음을 알 수 있다.

<표 7> 현재 우리사회 부패해소를 위한 제도 및 수용정도

	2009				2013			
	N	평균	표준 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N	평균	표준 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법제도의 합리성	203	3.30	1.85	0.13	227	3.23	1.74	0.12
부패 교육의 적절성	203	3.78	2.34	0.16	207	3.39	1.79	0.12
부패해소를 위한 공직선거의 효과	203	4.11	1.81	0.13	207	4.08	1.81	0.12
시민단체 사회참여를 통한 부패해소 인식	203	5.83	2.16	0.15	207	5.65	2.13	0.14
지도층 및 장년층의 부패가 청소년범죄에게 미치는 영향	203	6.41	2.56	0.18	207	6.38	2.56	0.17
성공을 위한 부정 사용에 대한 인식	203	5.92	2.40	0.17	207	5.93	2.39	0.16
우리사회의 부패 수용에 대한 평가	203	3.68	2.01	0.14	207	3.63	1.97	0.13

현재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에 대한 합리성, 교육의 적절성, 그리고 일반적인 사회 통제시스템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에 대한 결과는 비교적 부정적인 입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과 비교하여 2013년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더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부패해소를 위한 법제도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었으며 이와 함께 부정부패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도 3.78점에서 3.39점으로 부정적인 입장이 더 커졌다.

그러나 지도층 및 장년층의 부패가 청소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평균값과 성공을 위한 부정 사용에 대한 인식은 미묘하게나마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2) 사회적 표상계층에 대한 부패인식 결과

우리 사회의 지도계층이라 할 수 있는 표상이 되는 사회적 계층에 따른 부패정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대학생들은 정치계층이 가장 부패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009년에 비교하여 좀더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우리 사회 구성 계층에 대한 부패인식

		2009				2013			
		N	평균	표준 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N	평균	표준 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정치계		203	8.803	1.668	0.117	227	8.846	1.626	0.108
	정당		8.537	1.695	0.119		8.581	1.671	0.111
	정치인		8.862	1.586	0.111		8.907	1.542	0.102
	단체장 및 장·차관 등 정무직		8.079	1.881	0.132		8.119	1.855	0.123
경제계			7.729	1.703	0.120		7.740	1.688	0.112
	대기업		8.473	1.781	0.125		8.502	1.771	0.118
	중소기업		6.296	1.937	0.136		6.317	1.922	0.128
	노동조합		6.020	2.182	0.153		6.026	2.198	0.146
교육계층			6.571	1.760	0.124		6.551	1.727	0.115
	공교육		5.970	2.216	0.156		5.956	2.198	0.146
	사교육		7.305	2.055	0.144		7.361	2.049	0.136
법조계			6.685	1.955	0.137		6.643	1.960	0.130
	사법부		6.458	2.121	0.149		6.432	2.095	0.139
	검찰		6.611	2.245	0.158		6.604	2.238	0.149
	경찰		6.463	2.190	0.154		6.449	2.166	0.144
의료계			6.256	2.052	0.144		6.242	2.050	0.136
고위공무원			7.872	1.773	0.124		7.912	1.748	0.116
국가공무원			6.936	1.945	0.137		6.934	1.937	0.129
지방공무원			6.320	1.963	0.138		6.291	1.913	0.127
시민단체			4.704	2.044	0.143		4.670	1.998	0.133

사회표상계층의 전반적인 인식이 부정적인 시각이 좀더 높아진 가운데 경제계층에 대한 대학생들의 부패에 대한 인식에서도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교육계층에 대한 분석에서는 사교육과 관련된 부정부패가 더 심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법조계층에서는 검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고위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큰 것을 알 수 있다.

3) 자기 자신의 부패에 대한 인식 결과

현재 자신이 입장에서 상황에 따른 의향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국제투명성기구의 청소년 반부패 인식지수에 사용된 설문항목을 준용하여 질문 문항을 수정하여 조사하였다.

정의에 대한 인지, 도덕/윤리에 대한 인지, 그리고 법규 준수에 대한 윤리에 대하여

각각 질문하였는데 우선 정의에 대한 행동에 대한 질문으로 내부고발과 관련된 질문문을 설정하였고 정의에 대한 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으로 인한 이득이 크다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었다. 그리고 도덕/윤리에 대한 질문으로 과정상 부정이 결과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사용하겠느냐는 질문을 하였고 반부패에 대한 행동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뇌물이나 청탁을 할 의향에 대해서 물었다.

전체적으로 분석결과 집단간의 확률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부정으로 인한 손해보다 소득이 크다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겠다는 의견의 평균값이 2009년보다 조금 높아졌으며, 자신의 부정은 사회표상계층에 비해 사소하다고 응답한 평균은 조금 낮아졌다. 또한 부정사용이나 청탁, 뇌물공여, 부정고발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조금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와 한국투명성기구가 2008년 청소년 반부패 인식도 조사 결과에 나타난 뇌물공여에 대한 반부패 의식 점수가 평균 6.71점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 충청권 대학생들의 반부패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부정행위가 정치인 등의 부정행위 등과 비교하였을 때 사소한 것이라는 인식이나 청탁이나 뇌물 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대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사회적 환경에 따라 부정과 관련된 엄격성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표 9> 응답자 자신의 부패인식

	2009				2013			
	N	평균	표준 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N	평균	표준 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부정으로 인한 손해보다 소득이 크다면 부정한 방법 사용	203	5.212	2.53	0.17	227	5.242	2.52	0.17
자신의 부정행위와 정치인 등의 부정행위는 비교대상이 되지 않을 만큼 사소하다	203	4.493	2.65	0.18	227	4.467	2.68	0.18
과정상 부정이 있더라도 결과상 문제없다면 부정사용할 의향	203	3.778	2.29	0.16	227	3.775	2.30	0.15
청탁이나 뇌물 사용의향	203	4.704	2.61	0.18	227	4.718	2.60	0.17
부정을 알게 되었을 때 내부고발 의향	203	5.798	2.24	0.15	227	5.811	2.24	0.15

추가적으로 현재 자신의 부패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남녀의 인식비교에서는 부정으로 인한 손해보다 소득이 크다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남학

생에게 더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과정상 부정은 문제없다고 인식하는 경향도 남학생이 더 많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직업 또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청탁이나 뇌물을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응답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경향은 남성이 사회진출이나 성공에 대한 욕구가 큰 측면도 있을 것이고 향후 미래에는 여성적 감성의 측면이 부정부패를 감소시키는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0> 응답자 자신의 부패인식에 대한 남녀비교

	2009					2013			
	성별	N	평균	F	유의 확률	N	평균	F	유의 확률
부정으로 인한 손해보다 소득이 크다면 부정행위 방법 사용	남성	101	5.34	14.62	0.00	111	5.40	19.4	0.00
	여성	102	5.09			116	5.09		
자신의 부정행위와 정치인 등의 부정행위는 비교대상이 되지 않을 만큼 사소하다	남성	101	4.90	2.83	0.09	111	4.86	4.25	0.04
	여성	102	4.09			116	4.09		
과정상 부정이 있더라도 결과상 문제없다면 부정사용할 의향	남성	101	4.39	35.08	0.00	111	4.36	45.1	0.00
	여성	102	3.18			116	3.21		
청탁이나 뇌물 사용의향	남성	101	5.27	10.27	0.00	111	5.31	14.18	0.00
	여성	102	4.15			116	4.15		
부정을 알게 되었을 때 내부고발 의향	남성	101	5.66	0.42	0.52	111	5.70	0.47	0.49
	여성	102	5.93			116	5.91		

현재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살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이라고 응답이 2009년과 2013년 모두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다음으로 부정으로 생긴 이익을 전액 환수할 수 있는 제도 강화가 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009년 8.990점, 2013년 9.013점으로 다소 높아졌고, 처벌의 강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부정을 밝힌 사람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점수분포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점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현재까지 우리사회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가시적으로 또는 현재 젊은 세대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사회전반에 대한 신뢰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표 12> 반부패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2009				2013			
	N	평균	표준 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N	평균	표준 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청소년 교육강화	203	6.985	2.454	0.172	227	6.996	2.452	0.163
청렴교육강화		7.862	2.405	0.169		7.859	2.424	0.161
지도층 술선수범		9.039	1.726	0.121		9.093	1.660	0.110
처벌규정강화		8.734	2.024	0.142		8.736	2.031	0.135
부정이익 환수		8.990	1.808	0.127		9.013	1.759	0.117
내부고발자 보호		8.823	1.985	0.139		8.841	1.947	0.129
정보공개 강화		8.232	2.106	0.148		8.256	2.124	0.141
검찰 및 경찰 독립		7.557	2.374	0.167		7.581	2.362	0.157
언론감시 강화		7.217	2.754	0.193		7.216	2.753	0.183
정부캠페인 강화		6.892	2.571	0.180		6.907	2.556	0.170
옴부즈만 제도강화		7.084	2.227	0.156		7.009	2.204	0.146
국민권익위원회 독립성 강화		7.291	2.348	0.165		7.233	2.366	0.157
국민신문고 활성화		7.882	2.172	0.152		7.890	2.154	0.143

우리 사회의 부패상황에 개선에 대한 남녀간의 인식비교에서는 처벌규정강화와 검찰 및 경찰의 독립성 강화, 국민신문고제고의 활성화는 남녀의 차이가 없이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청소년에 대한 교육에 대한 2009년 대비 남성은 조금 높은 수준의 긍정이 있었고 여성은 조금 하락하였으며, 부정이익 환수는 남성은 좀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한 반면 여성은 비교 년도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내부고발자 보호는 남성과 여성이 차이없이 비교 년도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여성이 좀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반부패를 위한 정부의 캠페인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와함께 신문고 제도 등 부정에 대한 공개적인 감시,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처벌이나 부정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적 장치들에 대한 강화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반부패에 대한 인식이 젊은 대학생 계층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현재 사회의 표상이 되고 있는 계층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있다는 것은 결국 제도적인 보완이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실망감을 표출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강화하게 위한 기성세대의 방법을 활용하는데 무감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찰이나 개선책의 제시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13> 반부패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의 성별 비교

	2009					2013			
	성별	N	평균	F	유의 확률	N	평균	F	유의확 률
청소년 교육강화	남성	101	7.43	10.22	0.00	111	7.55	12.55	0.00
	여성	102	6.55			116	6.46		
공무원 등 청렴교육강화	남성	101	7.87	8.38	0.00	111	7.84	13.03	0.00
	여성	102	7.85			116	7.88		
지도층 솔선수범	남성	101	8.83	6.87	0.01	111	8.91	6.47	0.01
	여성	102	9.25			116	9.27		
부정이익 환수	남성	101	8.85	5.57	0.02	111	8.89	5.97	0.01
	여성	102	9.13			116	9.13		
내부고발자 보호	남성	101	8.60	7.08	0.01	111	8.64	8.47	0.00
	여성	102	9.04			116	9.03		
정보공개 강화	남성	101	7.99	4.46	0.04	111	7.98	6.66	0.01
	여성	102	8.47			116	8.52		
정부캠페인 강화	남성	101	6.91	6.39	0.01	111	6.94	8.33	0.00
	여성	102	6.87			116	6.87		
옴부즈만 제도강화	남성	101	7.06	5.83	0.02	111	7.04	7.05	0.00
	여성	102	7.11			116	6.98		
국민권익위원회 독립성 강화	남성	101	7.02	7.11	0.01	111	6.96	9.05	0.00
	여성	102	7.56			116	7.49		

I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결과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현재 우리 사회의 표상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기성세대 및 지도층, 그리고 각계를 대표하는 계층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대학생들 즉, 미래세대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일한 설문으로 4년이 지난 후 같은 지역의 대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사회표상계층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을 때의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분석에서와 같이 부정적인 인식의 강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미래세대에게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향후 우리 사회의 반부패에 대한 노력에 상당히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사회적 표상계층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사회의 지도층으로 있으면서 사

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측면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도층의 술선수범과 비합리적인 제도와 규정을 정비하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 나라의 CPI 지수가 2009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러한 하락세와 마찬가지로 우리사회의 미래 계층이 기성세대와 사회 지도층을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에는 최근의 정치인 부정비리 척결과 경제민주화라는 화두가 등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반부패의 기준점을 어디에 맞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의 틀을 제공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삶의 표상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많은 계층에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국가 전체적인 상징에 대한 부재와 역할 모델로 삼을 지도층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국가전체에 대한 표상과 상징은 정책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Almond & Powell이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상징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국가차원의 정통성에 대한 인식과 정부정책의 순응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바로 개인들의 표상을 바르게 인식시켜 주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도 지적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선 전국적인 차원의 대학생들의 인식조사 보다는 특정지역의 대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대표성의 한계를 지닐 수 있다. 또한 사회적 표상이라는 개념이 부패와 그리고 사회계층, 집단에 어떻게 연계될 것인지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미흡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적 표상이 직접적으로 어떠한 계층과 연관된다는 근거가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적 표상과 부패의 연관성, 그리고 영향관계를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며 대학생뿐 아니라 초·중·고 학생들의 연구들도 같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기성세대는 우리 청소년과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 세대에게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바르게 제시하고 그것이 개인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무조정실·경쟁력평가원(2005). 2005년도 IMD·WEF 국가경쟁력 비교분석.
- 김명언·김의철·박영신(2000). 청소년과 성인간의 세대 차이와 유사성, 한국심리학회 「사회문제」 8권 1호: 181-204.
- 김묘성·김의철·박영신(2002). 한국 정치지도자의 문제점과 자질에 대한 청소년의 표상: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김의철·박영신(2005). 북유럽과 동아시아에서의 신뢰, 관계와 시민 사회: 심리, 사회, 문화적 분석.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 김홍희(2005). 협동거버넌스에서의 부패, 신뢰, 그리고 책임성, 한국행정논집 17(4).
- 박용치·이충민(2005). 부패지수 측정모형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조사연구학회 「조사연구」 6(1):1-38.
- 박영신·김의철·정갑순(2004). 한국 청소년의 부모자녀 관계와 성취에 대한 종단연구: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Vol.10, No.3.
- 박영신·김의철(2005). 청소년과 성인 세대의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인식 및 신뢰,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11권 3호:91-119.
- 유광민·김기완·김남조(2007). 관광개발에서 주민태도연구의 비판적 고찰: 사회교환이론과 사회표상이론을 중심으로, 관광연구논총 제19권 제2호.
- 윤광재(2003). 부패방지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 서울:한국행정연구원.
- 윤영진·김의철·박영신(2004). 청소년과 부모세대의 한국사람과 공공기관 및 국가에 대한 신뢰 분석. 사회문제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이상환(2004). 국제적 부패 관련 경험적 연구의 한계와 개선방안: 부패지수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22(1): 139-163.
- 윤광재(2005). 국가경쟁력과 부패인식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부패학회보」 10(3): 69-88.
- 진종순·서성아(2007). 부패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부패행위.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 최순영(1987). 귀인이론의 비평적 고찰 및 개인-사회적 수준으로서의 확대모형 제안. 사회심리학연구, 3(2), 161-180.
- 한국행정연구원(2005).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패문제 해소방안 연구」.
- 한국투명성기구 한국본부(2008). 2008년 청소년 반부패 인식도 조사결과.
- 한국투명성기구 <http://ti.or.kr/xe/>
- 국민권익위원회 <http://www.acrc.go.kr>
- Barth, Thomas J. (1996). "Administering in the Public Interest : The Facilitative Role for Public Administrators." In Gary L. Wamsley, James F. Wolf (eds.), *Re-founding Democratic Public Administration : Modern Paradoxes, Post-modern Challenges*. London: Sage pub.
- Fredline, Elizabeth & Faulkner, Bill(2000). Host community reaction—a cluster analysis.

- Annals of Tourism Research*. 27(3).
- Fredricson, H. G. (1997). *The Spirit of Public Administration*. Sanfrancisco: Jossey-Bass.
- Forest J. Jourden.(1991). Self-Regulatory Mechanisms Governing the Impact of Social Comparison on Complex Decision Ma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ume 60, Issue 6, 941-951.
- K. Kashima, T. Ishimaru, H. Okamura, H. Suginami, K. Ikuma, T. Murakami, M. Iwashita, K. Tanaka(2004). Familial risk among Japanese patients with endometriosis, *International Journal of Gynecology & Obstetrics*, Volume 84, Issue 1.
- International Management of Development(2006).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6*.
- World Economic Forum(2006).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6-2007*,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for the World Economic Forum.
- TI(2006). *Report on the Transparency International Global Corruption Barometer 2006*.
- Pearce, P.L., Moscardo, G., G.F.(1996). Tourism dependence and resident attitude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7(2):391-411
- Porter.M.E(2003). "Building the Microeconomic Foundations of Prosperity: Findings from the Microeconomic competitiveness Index", *In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1-2002*,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for the World Economic Forum.
- TI(2006).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06*.
- TI(2006). *Using the Right to Information as an Anti-Corruption Tool*.

투고일자 : 2013. 05. 13

수정일자 : 2013. 06. 05

게재일자 : 2013. 06. 18

국문초록

사회표상 계층에 대한 대학생들의 부패인식

배정환(한서대)

본 연구는 현재 우리 사회의 표상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기성세대 및 지도층, 그리고 각계를 대표하는 계층들이 미래 우리사회를 이끌어갈 대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이다.

연구결과 현재 우리 사회의 표상계층은 미래 세대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추어지고 있으며 그 정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일한 설문으로 4년이 지난 후 같은 지역의 대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사회표상계층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을 때의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분석에서와 같이 부정적인 인식의 강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미래세대에게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향후 우리 사회의 반부패에 대한 노력에 상당히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사회적 표상계층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사회의 지도층으로 있으면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측면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도층의 술선수범과 비합리적인 제도와 규정을 정비하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표상, 부패, 계층, 신뢰

